"20년간 허위 이사회 개최 일광학원 임원 전원 해임"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실태 감사
이사회 미개최·허위 회의록 작성
우촌초 교원 채용과정도 불투명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20년간 허위 이사회를 여는 등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된 임원이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임원 전원을 해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가 실시한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일광학원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9명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현재 물러난 종전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사전조처로 일광학원 현 임원진의 직무집행을 60일간 정지하는 처분도 내렸다. 일광학원은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2001년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2010년경까지 제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임원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다. 2010년 이후에는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이사회 참석한 임원 서명란에 임의로 대필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광학원은 앞서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23억여원의 우촌초 교사 증축비용을 법인회계에서 보전조치를 요구받았고, 2013년 이래 감사결과 11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해 불이익 조치하고 사무직원 16명을 부적정 채용하는가 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된 전 이사장이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전횡이 확인됐다.

교육청 감사 결과, 2018년 이 전 이사장 지시로 우촌초에 '기획홍보실'이라는 부서가 신설됐고 그의 전 비서 등 일광그룹 직원 3명이 아무런 전형도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 2019년에는 이 전 이사장의 처남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2001년~2010년 사이 임용된 학교 사무직원 17명 중 채용 절차를 지킨 사람인 1명뿐이었다.

우촌초 교원 채용과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우촌초 교감을 새로 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 없이 이 전 이사장의 장남과 전 이사장이던 이 전 이사장 부인이 참여한 면접만 했다. 올해 정교사 채용시에는 이사회에서 사전 전형계획을 의결받지 않고 전형을 진행해 면접에서 '신앙심'을 평가했다고 한다. 또 일광학원은 우촌초에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학비감면 규정'을 만들어 이 전 이사장 손자들 등의 학비를 받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과 그 부인은 2015년 3월, 아들 이종찬 씨는 2019년 2월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최근까지 이 전 이사장이 이사회와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에 대해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처분을 일광학원에 예정통보하고 이의신청(재심의 신청)을 받아 재심의 결과 기각이 되면 시정요구, 청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절차를 거쳐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 임시이사 파견까지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노은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5개 부처 지역사회 정책 맞손

"지역사업 연계… 정책효과 ⬆"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발굴
주민주도 지역사업 기반 마련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사회 중심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2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앞서 2018년 9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해 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5개 부처는 부처 간 사업 연계와 협력사업 추진 및 발굴, 주민주도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주요 성과 사례 확산과 홍보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경우는 농촌지역 보건·복지서비스 보완을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한용수 기자

수능 모의평가 4월17일로 하루 더 연기

"1,2차 시험요일 겹쳐… 수업결손 방지"

3월·4월 모의평가 실시 요일 분산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가 4월17일로 하루 더 연기됐다. 1,2차례 모의평가 요일이 모두 목요일로 치러질 경우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주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3월 모의평가)를 4월17일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3월 모의평가는 당초 3월12일 예정이었으나 개학 연기로 4월2일, 4월16일로 연기됐었다. 이번 연기는 두번째 수능 모의평가인 경기도교육청 주관 4월 모의평가(5월7일 목요일)와 시험 요일이 겹쳐 특정 교과목 수업 결손이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한용수 기자

아주대, 원격수업 2주 연장… 4월 13일 등교

아주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원격수업의 운영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실제 등교 시작일은 기존 3월 30일에서 4월 13일로 2주 늦춰진다.

24일 아주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기간을 2주 더 늘린다고 밝혔다.

24일 아주대에 따르면, 학교는 앞서 1학기 개강을 2주 연기하고, 개강 후 2주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비대면 수업 진행 기간을 2주 연장, 1학기 학사일정 중 총 4주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lhj@

인천대, 이공계 인재양성 3단계 사업 선정

2단계 평가서 A등급 획득

인천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맞춤형 실전문제연구단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실전문제연구단) 3단계 사업에 연속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선 2단계 평가에서는 A등급을 획득했다.

실전문제연구단은 이공학계열 학부생이 산업체 현장에서 제기된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의·도전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대 실전문제연구단은 지난 2단계에서 40여팀을 선발하고 ▲실전문제도전 경진대회 ▲데이터활용 AI 실무교육 ▲지역기업대상 연구성과 시연회 등 특화된 현장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현진 기자

최경민 성균관대 교수팀

고속스핀 생성 원리 밝혀

성균관대는 최경민 에너지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 이경진 교수 연구팀, 포항공대 이현우 교수(사진) 연구팀과 함께 금속 물질에서 빛에 의한 초고속 스핀 생성 원리를 실험적으로 밝혀냈다고 24일 밝혔다.

스핀은 전자가 갖고 있는 양자적 각운동량이다. 스핀을 생성해 이동시키는 스핀전류는 스핀메모리 소자의 동작에 응용된다.

연구팀은 플라티늄과 같이 스핀-궤도 결합이 강한 비자성 물질이 원형편광 빛을 흡수하면 광배열원리에 의해 빛의 각운동량을 전자의 각운동량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다.

/이현진 기자

연세대, 진균 뇌 감염조절 유전자 발굴

원천기술 확보… 글로벌 항진균제 시장 진출

반용선·정은지 교수 연구팀
앰틱스바이오와 합작해 특허출원
"새로운 항진균 약물 개발 가능할 것"

반용선
생명공학과 교수

정은지
생명공학과 교수

연세대는 반용선·정은지 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뇌 감염질환 유발 곰팡이(진균)의 뇌 감염조절 유전자를 대규모로 발견하고, 감염기작과 관련된 기능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전자 대규모 발견으로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항진균제 및 진균성 뇌 감염질환 치료제 개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연구팀은 앰틱스바이오와 공동연구를 통해 뇌 감염질환 유발 곰팡이인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만스를 모델시스템으로 활용해 곰팡이의 뇌-혈관장벽 통과 및 뇌 감염조절 인자를 대규모로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연구팀은 공동연구기관인 ㈜앰틱스바이오와 합작해 뇌 감염조절 유전자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국내 원천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5조원이 넘는 글로벌 항진균제 시장에 국내 산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용선 교수는 "이번 연구로 밝혀진 뇌 감염질환 유발 곰팡이의 뇌 감염조절 인자를 저해하는 새로운 항진균 약물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